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 휴머니즘 시각의 재고

박혜정\*

### Urban Planning in Post-COVID-19 Era: Humanist Perspective Revisited

Hye Jung Park\*

**요약:**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생명-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 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규범에 기초하여 도시와 지역을 계획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계로 무엇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이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주요어:** 코로나19, 휴머니즘 계획, 공감, 역량접근법, 마사 누스바움, 포스트휴먼

**Abstract:** COVID-19 is wreaking havoc on a grand scale while causing us great confusion. Due to this unpredictable situation, we are concerned with public health,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as well as the great transformation of human civilization. Among the various discussions, this study asks questions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urban planning in the context of the era of uncertainty and the posthuman era in which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ical systems are combined with human life. How can we plan our cities and regions in the future, that is to say, what is the normative basis of our planning? And what can we consider as the first step in concrete practice? To find answers to these question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hilosophical review of Martha Nussbaum's compassion and capabilities approach. In line with her perspective, by introducing the humanist planning that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academic field, we could depict our cities of tomorrow that we should pursue in post-COVID-19 era.

**Key Words :** COVID-19, humanist planning, compassion, capabilities approach, Martha Nussbaum, posthuman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374).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hyejungpark@gmail.com)

## 1. 서론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인류에 경고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들도 있다. 이제껏 도시의 미덕으로 칭송했던 발달된 대중교통, 활성화된 커뮤니티, 다양한 문화 등은 이제 팬데믹(pandemic)의 주범으로 지적되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확진자 수를 집계하고 빅데이터에 의존해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봉쇄와 격리,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 형태의 배제를 실시한다. 그러나 질병을 구축(驅逐)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가, 어느덧 다른 집단에 대한 혐오로 변질되는 것도 현실이다. 한 예로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제노포비아(xenophobia)의 심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이태원·대구와 같은 공간적 속성, 성소수자·신천지와 같은 사회적 속성에 대해 비정상적 낙인을 찍고 이들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에 대해 어느 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도시와 지역에 대한 계획은 무엇에 기반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답하는 것이다. 그간 도시계획은 ‘합리성’의 강조를 통해 경제적 계산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왔으며, 인간의 감정은 이성과 대치되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계획의 영역에서 배제해왔다. 그러나 계획은, 정확한 계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결정을 최대한으로 모아 바람직한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전체를 포함한다(Friedmann,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도시를 구상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그

간의 ‘인간에 대한 인식의 재고찰’을 통해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성과 합리성에만 집중했던 도시계획의 관심을 인간에 대한 공감으로 전환하여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혐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공감, 그리고 사회발전 및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개인의 역량 개발을 강조한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연결하여 휴머니즘 계획을 고찰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불확실성을 마주한 도시계획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도시계획이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은 전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도시 공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후반 이래 대도시의 다원적 특성 및 사회 집단 간 차이의 증가 등을 통해 언급되어 왔다(Jon, 2020). 소자(Soja, 1997)와 샌더록(Sandercock, 1998a)은 오랜 기간 보편적 진리로 인식해온 모더니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연성(reflexibility)’과 ‘개방성(openness)’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이러한 해결책들이 남용될 경우,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이러한 논의에 대해 알멘딩어(Allmendinger, 2001)는, 이들이 모더니즘적 접근을 거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방향에 가까운 특정 목표(예를 들어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에 우선순위를 부과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삼은 계획은, 하버마스(Habermas, J.)의 시각에 근거하여 의사소통의 공정한 과정에서 계획의 합리성을 찾는 의사소통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이다(Forester, 1999, 2006; Healey, 2003 [1996]).

의사소통 계획이 주류 계획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몇몇 계획학자들은 불확실성 자체를 강조한 계획(planning for uncertainty)을 논의하였다. 힐리어(Hillier, 2008; 2011)는, 오늘날 역동적인 복잡성과 유연성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은 고정(fixing)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있는 전략적 활동이라고 본다. 나이세스(Nyseth, 2012) 역시 유연적 계획(fluid planning)<sup>1)</sup>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공간계획의 유동성을 강조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 모더니즘 계획의 문제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전(Jon, 2020: 150-151)은 계획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입장들이 초래할 문제에 대해 경고한다. 아래로부터의(bottom-up) 계획을 강조하는 경우에 계획가의 역할은, 사안을 외부에서만 보면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결과를 '따르는' 것에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집단 이기주의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획가 스스로 '규범'적 관점을 확고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획가는 합의 과정 중에 계속해서 공공가치나 사회정의와 일치하는지 자문(自問)하고, 그 윤리적 가치와 계획과정의 상충한다면 어떤 이해당사자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다양한 상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획을 추진하는 개방성이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도 깊은 사유를 통해 계획이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의 원칙은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계획이 기초할 철학적 기준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의 포스트휴먼 담론을 만나 더욱 복잡해진다. '포스트'는, 탈근대주의나 탈식민주의와 같은 '탈(脫)'의 의미로 사용되며, 포스트휴먼이란 '인간을 넘어서는 것',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 혹은 그것에 입각한 기존의 세계관이나 삶의 형태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포스트휴먼은, '인간 아닌 것(non-human being)' 혹은 '비인간(inhuman)'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을 정의하던 기존 휴머니즘에 대한 도전

이며, 이는 휴머니즘이 핵심이 되던 근대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신상규, 2020: 14-15).<sup>2)</sup>

근대 사상의 기초는 정신-물질, 생명-기계, 자연-과학(인공)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은 역사의 주체로 정의되었고,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자연)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그 존재가 결정되는 객체로 대상화되어 왔다. 다시 말해 지배와 권력의 근거를 '생각하는 능력'의 소유 여부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등을 통해 더 이상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기 어려워지며,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그 삶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Pepperell, 2003). 이에 따라 우리는 "인간과 기계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가? 마음과 물질은 전적으로 서로 다른 것인가? 자연과 인공을 나누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구분인가?"(신상규, 2020: 20)와 같이 자문할 수 있다.

탈휴머니즘의 포스트휴먼 담론은,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경제성장의 문제에만 연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본적 조건이나 구조를 새롭게 상상하는 인문학적 문제'이다. 인간-생명-기술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에 주의할 점은, 근대적 이분법에 따른 시각이 아닌 "새로운 도덕적 상상과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어휘나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신상규, 2020: 21) "결국 앞으로의 포스트휴먼을 상상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론적 가치관과 실천적 방향성을 제안하여 새로운 삶과 관계의 방식을 발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신상규, 2020: 23) 이렇듯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간만을 위한(anthropocene) 계획이 아닌, '인간-비인간을 아우르는, 인간을 위한 계획'을 새롭게 쓰는 것이 포스트휴먼이며, 이는 새로운 인간 삶의 방식에 대한 기획(planning)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찾기 위하여 철학자 누스바움의 논의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보고,

누스바움의 혐오에 대한 비판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인간 존엄의 사상에 기초한 발전이론으로서의 역량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의 내용을 고찰할 것이다. 이어서 그 철학적 논의들이 앞으로의 도시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휴머니즘 계획을 통해 찾을 것이다.

### 3. 마사 누스바움의 철학적 논의: 공감과 역량의 계발

#### 1) 혐오의 비판과 공감의 제고

먼저 누스바움이 인간 감정의 (비)합리성에 대해 논의한 「혐오와 수치심을 통해 혐오와 공감에 대해 살펴보겠다. 혐오의 사전적 정의는 ‘어떠한 것을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이다. 누스바움은 혐오를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것)는 어떠한 것이다’라고 믿으면서 특정 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한다(Nussbaum, 2004: 159-160). 즉 무언가를 두려워하거나 기피하는 혐오는, 대상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관련된다. 그렇게 믿는 방식에 대해, 누스바움은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오염물질 및 부패 과정을 혐오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한다. 오염물질에 대한 혐오는, 동물성을 연상시키는 것들, 예를 들면 신체의 점액, 배설물, 체취 등이 불결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이를 접했을 때 구토, 소름, 경악 등의 거부감을 보인다(Nussbaum, 2004: 169-170). 또한 부패 과정은 ‘죽음’의 이미지에 연계되므로, 이에 대한 혐오는 생명 위협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며, 따라서 일부 유익한 감정이 작동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누스바움은 아우슈비츠의 비극을 예시로 들며 혐오의 해악에 대하여 역설한다.

나치 시절 테벨라이트의 의용군 장교들은 이송 열차

안에 유대인들을 배설물과 함께 두고 뒤엉키게 방치함으로써, 그들을 쉽게 동물 취급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다시 말해 수렁, 진창, 늪, 홍수, 악취 등에 대한 혐오감을 “유대인, 여성들, 동성애자들, 불가촉천민들, 하층 계급” 등의 소수자 집단에 투사해 자신들의 잔학 행위를 정당화했다(Nussbaum, 2001: 632-635; Nussbaum, 2004: 202-207). 그러나 우리가 접촉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정한 오염물질들은 모든 유기체의 생명 활동과 연결되는 것이며, 어느 인간도 불결함, 냄새, 부패 등과 멀리 떨어질 수는 없으므로, 결국 모든 인간은 스스로 오염원 혹은 전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신은화, 2017: 198). 그러므로 혐오 안에는 인간의 자기부정적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 역시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완벽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인간성에 대한 불관용’(Nussbaum, 2001: 636), “자기기만”이며 “헛된 열망”(Nussbaum, 2004: 192)이다.

나의 완벽함 대(對) 타자의 열등함의 맹목적 믿음은, 단지 “추정적인 판단”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감정이다(Nussbaum, 2004: 193). 이러한 비합리적인 혐오의 정반대에 위치한 감정이 바로 ‘공감’(연민, compassion, fellow-feeling)이다.<sup>3)</sup> 공감은 “우리의 상상을 타자들의 선(善)과 연결시키고 타자들을 우리의 집중적 배려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 종종 의지하는 감정”(Nussbaum, 2001: 47)으로, 인간 삶의 불행인 죽음, 부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 시민권의 상실, 굶주림, 가난 등 “모든 인간 존재의 공통 운명”(Nussbaum, 2001: 624)에 반응하는 감정이며, 그와 같은 고통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Nussbaum, 2001: 552-556).

공감은 인간에 대한 사고과정과 깊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Nussbaum, 1995). 이는 인간이 모두 ‘취약한 존재’라고 인지하고 이를 통해 공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sup>4)</sup> 타자를 바라보고 있는 나 역시 타자와 같이 취약한 존재라는 인

식은, 사회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모두 나의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유사성을 찾게 하며, 이 과정에서 나는 공감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공통된 취약성을 나의 특성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타인의 고통을 느끼고 고난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게 된다(Nussbaum, 2001: 731).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느끼던 혐오의 감정은 사라지고 '분별 있는 관찰자'의 시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공감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더 나아가 누스바움은, 공감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상호 의지하며 형성한 유대의식을 통해 사회체계가 안정된다고 한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료 시민에 대한 폭넓은 공감(연민)”(Nussbaum, 2001: 637)으로 연결되며, 이는 결국 사회적 위계 구조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된다(이선, 2018: 31). 이 대목에서 누스바움은 루소의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시민 사회의 모든 구별이 사라져 버린다”는 구절을 인용한다(Nussbaum, 2001: 625). 결국 공감을 기반으로 윤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은 이미 선(善)을 내포한 도덕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공감이야말로 공적(公的) 영역에서 가장 제고되어야 할 능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누스바움은 법, 도시계획, 사회정책 등을 다루는 자들은 반드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나 계획학과의 교육 과정에 ‘소셜 읽고 토론하기’ 수업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다(Nussbaum, 1995).<sup>6)</sup>

사회구성원의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가 만연한 사회를 떠올려보자. 자신은 순수하고 우월하다는 맹목적 믿음은, 사회 내 자유로운 비판 및 합리적 소통에 위협적이며, 내 의지에 따라 타자를 굴복시키려는 욕구와 결합하기 쉬우므로, 폭력 정당화에 활용될 수 있다. 결국 모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각 개인에게 필요한 기본적 재료가 갖춰지고 이를 제대로 분배할 수 있다면, 공감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사회발전 이론으로 제시한

것이, 다음에 살펴볼 역량접근법이다.

## 2) 역량의 개발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누스바움은 「역량의 창조 Creating Capabilities」를 통하여 기존 발전경제학의 지배적 이론이라 할 수 있는 GDP접근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인간존엄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역량접근법을 발전경제학 및 공공정책에 적용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제안한다.<sup>7)</sup> 역량접근법은, 재원이 개인의 잠재력이나 성취에 대한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니며, 높은 총소득 척도는 상당한 불평등은 폐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Nussbaum, 2011), 결국 경제 발전은 그 자체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포괄적인 번영을 위한 중간 목표(Sen, 1990: 41-42)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역량접근법은 인간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논의를 경제적 지표에만 국한하여 인간을 계량적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개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로서의 역량 및 인간에 대한 존엄의 제고를 통하여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시각이다.

누스바움은 역량(capabilities)을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정의한다(Nussbaum, 2011: 35).<sup>8)</sup>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역량의 개념은, 인간의 적극적 자유를 의미한다. 자유의 실현은 역량의 실질적 보장 안에서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이 고려되면서 건강, 신체보전, 교육, 환경 등이 국가에 의해 적절히 보장될 때 자유를 말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개발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 및 역량의 개발과 번영은 ‘인간으로 산다’, ‘인간으로 되어 간다’라는 목적론적 의미를 가지며, 그러한 상황이 가능할 때 각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자유롭게 발달시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결국 인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정부와 공공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역량의 보장에 실패한 사회는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 차별, 소외 등을 초래

하게 된다(Nussbaum, 2011: 33-34).

누스바움은 개인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핵심적인 역량을 (1)생명(life), (2)신체건강(bodily health), (3)신체보전(bodily integrity), (4)감각·상상·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5)감정(emotions), (6)실천이성(practical reason), (7)관계(affiliation), (8)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9)놀이(play), (10)환경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의 10가지로 정리해 설명한다.<sup>9)</sup> 이는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로서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이 보장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정한 국가라면 헌법을 통해 이 핵심역량들을 기본권 조항에서 구체화하여 반드시 이를 보장해주어야 한다(Nussbaum, 2011: 85). 다시 말해 이 핵심역량은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정의의 최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의 10대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주로 품위 있고(decent)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역량으로서의 감정(emotions), 특히 공감에 주목한다. 주변 사람이나 사물, 동식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역량의 중요한 요소이며, 감각기관을 활용한 상상·사고·추론할 줄 아는 역량 역시 교육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대한 고려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사회정의는 '고통을 느끼는 지각 능력'과 그러한 지각에 따라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역량과 긴밀하게 연계된다. 다시 말해 나와 타자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간 삶을 유지하고 번영하는 데 대한 합리적 감정, 즉 공감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강한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누스바움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어떠한 존재라는 방식으로 규범을 도출하기보다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적절한 여건이 어떠한지 하는가를 묻는 데서 사회발전과 정의를 세우고자 한다(김연미, 2019: 77). 특별히 인간 및 인간 이외의 종의 권리에 관하여, '지각 있는 모든 존재는 정의에 바탕을 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물도 쾌락과 고통의 수동적 수용

주체가 아닌 엄연한 능동적 행위 주체라는 시각을 통하여,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옳을 때에만 동물을 부당하게 대우해도 괜찮다고 주장한다(Nussbaum, 2011: 186-189). 인간 이외의 종의 권리를 고려한 누스바움의 논의는 존 롤스(John Rawls)의 사회정의론에서는 다루지 못한 쟁점으로, 인간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나 인간너머의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되며, 결국 "계(종뿐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역량 증진 그 자체가 역량접근법의 목적"이라고 본 점에서 보다 확장된 사회정의 개념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Nussbaum, 2011: 186).

결론적으로 누스바움은 인간에 관련한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하며, 특히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경제적 권리에서 사회적·문화적 권리로까지 넓혀 이를 사회발전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사회의 지향점을 규정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인간 개인에 대한 고려가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강하게 주시시킨다. 더구나 자기중심적 비합리적 감정을 배제해야 하며, 우리 사회에 중요한 감정을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생성한다는 시각을 통해 제대로 된 공감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개인의 역량 개발을 통해 공동체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과정을 설명한 누스바움의 논의를 배경으로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도시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최근 논의된 '휴머니즘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휴머니즘 계획 이론과 실천

##### 1) 휴머니즘 계획이론의 특성

앞서 고찰한 개인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고려, 포스트 휴먼 시대의 도래 등을 통해, 인간에 대해 새롭게 정의

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 인간에 대한 재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계획이론으로 체계화한 휴머니즘 계획(humanist planning)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휴머니즘 계획에서 지칭하는 ‘휴머니즘’은, 근대적 이원론에 따른 인간중심적 시각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개된 인간만을 위한 시각에 대한 반성이며, ‘인간-비인간을 아우르는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인간을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휴머니즘 계획은 앞서 고찰한 포스트휴먼 담론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휴머니즘 계획은 아직은 그 자체로서 계획 영역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론이라고 하긴 어렵다.<sup>10)</sup> 새로운 계획이라기보다는, 그간의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적 계획의 한계를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한 가치를 계획의 규범적 기초로 강조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경제적·정치적으로 불균형한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계획이론과 실천을 탐구하는 계획학자 및 계획가들은, 현실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상에 따라 계획(planning as of people mattered)하기 어려웠으며 신자유주의적 내러티브에 대항하는데도 실패해왔다(Umemoto, 2017: 298). 그런데 이러한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을 비판하고,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한 계획가들은 이미 존재해왔다(Good *et al.*, 2017: 294). 예를 들어 패트릭 게데스(Patrick Geddes)는, 도시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를 코딩해 연구하는 등 기술적 전문지식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참여적 서베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돌아보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Hall, 1988: 188-193). 또한 루이스 뎀포드(Lewis Mumford)는 자본의 공간으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문화적 표현을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Mumford, 2011).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경우에는 도시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근린(neighborhood)의 역할과 인구의 다양성이라고 주장했

으며(Jacobs, 1992), 마샬 버먼(Marshall Berman)은 모더니티가 낳은 도시인의 소외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랑, 창조성 등의 역량을 강조하였다(Merrifield, 2002). 결국 이들의 공통점은 도시에서 우선하여 바라볼 특성은 인간 그 자체라고 본 것이다.

이들의 시각과 궤를 같이하면서 최근 논의된 휴머니즘 계획은, 오늘날의 휴머니즘이 주목하는 공정성(equity)과 사회정의 등을 계획의 규범적 근거로 수용하고 이에 따른 이론과 실천을 구성한다. 그러한 예시로서 굿과 동료들(Good *et al.*, 2017)의 논의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그간 계획학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 및 실용주의 철학, 휴머니스트 맑시즘 등의 이론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이론적 시각을 기존 의사소통 계획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휴머니즘 가치를 실현하는 계획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또 다른 예시로 우메모토(Umemoto, 2017)의 논의는, 굿과 동료들의 접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체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개인의 존엄(dignity)과 집단적 웰빙 사상에 기초하여 휴머니즘 계획이 따라야 할 규범적 근간, 즉 계획의 원칙을 제시하고, 휴머니즘 계획이론의 특성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 제시하였다. 이에 향후 도시계획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내용을 확장해나갈 휴머니즘 계획의 시작점으로서, 우메모토의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휴머니즘 계획이 따라야 할 원칙을 열거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의 원칙들은 앞선 장에서 살펴본 누스바움의 공감 및 개인 역량에 대한 논의들과 동일 선상에 있다. 이를 서술하면, 개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강조(①), 개인이 누려야 할 자유를 개인과 사회 발전의 (잠재적) 가능성으로서의 역량으로 인식한 점(②), 차이에 대한 포용적 입장 및 나와 타자와의 공감을 통한 상호의존의 사회(③), 역량접근법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발전에 대한 정량적 인식이 아닌, 삶의 질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 점(④), 혐오와 같은 잔인성을 배제하고, 사회구성원 간 상호 취약함에 대한 공감에 기반을 둔 사회정의의 실현(⑤),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가 더불어

표 1. 휴머니즘 계획의 원칙 - 규범적 기초

①	개개인은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통한 창의적인 재능과 욕구를 장려
②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③	차이(differences)를 평화롭고 협력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누리는(celebrated) 사회에서, 개인들이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통해 결합
④	모두를 위한 웰빙을 증가시키고, 빈곤과 고난을 최소화하며, 인간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시스템
⑤	상호 잔인함(cruelty)이 없는, 돌봄(care)과 관심(concern)의 사회. 취약한 자들을 위한 적절한 안전망(safety nets)을 통해 개인의 개선(betterment)에 이바지하는 사회
⑥	생태계 파괴, 인종차별, 인권 침해, 세계 빈곤, 커뮤니케이션 검열, 핵 확산, 극심한 부의 불균형 등과 같은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출처: Umcmoto(2017: 299)

표 2. 휴머니즘 계획이론 - 원칙에 기초한 체계화

1	<b>권력의 균등화 (equalizing power)</b>	신자유주의 시대에 인간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진보적 계획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나 계획학자들은 공익을 탐구하면서, 현재 도시계획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계획가들과 함께 권력 집단에 진실을 말하고, 심의 중인 계획을 통해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voices)를 높일 수 있도록 폭넓게 노력해야 한다.
2	<b>옹호의 역할 (advocacy role)</b>	옹호계획(advocacy planning)은 1960년대 사회운동으로 간주되어 왔고,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활용되지 못했다. 계획가들은 웰빙과 복지 실현을 위하여 효과적인 계획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예로 최근 확산된 대규모 사회운동들(환경운동, 사회정의운동 등)과 연계를 통해, 휴머니즘적·생물중심적(biocentric) 계획 담론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b>인간 지향 (people orientation)</b>	그간 계획이 고려하던 경제적 영향력보다는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력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앞으로 사회·문화·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재고가 필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계획은 모든 인간-인간 이외 존재-자연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더 깊은 사회 문화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4	<b>역량접근법 (capabilities approach)</b>	누스바움과 센(Sen, A.)의 역량접근법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 커뮤니티 계획은 이미 일정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권능화(empowerment) 수단이었다. 이에 모든 개인을 목적론적으로 바라보고 그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는 역량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커뮤니티 계획은 보다 건강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미래(healthy, just, and equitable futures)를 실현할 수 있다.
5	<b>체계변화 (systems change)</b>	계획가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 체계 및 관료문화에 의해 통제되므로, 현실적으로는 휴머니즘 계획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휴머니즘 계획이 직면한 과제는 정부조직이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다. 인간 존엄 사상에 기반을 둔 경제 및 사회 체계를 만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계획가와 계획학자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6	<b>포용적 과정 (inclusive processes)</b>	기존 의사소통 계획(communicative planning)은 휴머니즘을 경험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참여의 유형을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에 포용의 윤리를 함양하는 상호 이해(mutual understanding), 돌봄(care) 및 배려(concern)를 강화할 수 있다.

출처: Umcmoto(2017: 300-301)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



사는 환경으로 인식의 범위를 넓혀, 미래의 전 지구적 문제를 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⑥)로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적 원칙을 도시 및 지역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규범에 기초한 계획이론으로 보다 체계화된 논의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이에 <표 2>에서 휴머니즘 계획이론을 살펴보겠다.

<표 2>를 통해 살펴본 우메모토의 휴머니즘 계획을, 계획의 특성인 (1)목표지향성, (2)합리성, (3)의사결정활동, (4)통제성, (5)적응적 활동, (6)미래지향성(Reade, 1983: 163-168; Wildavsky, 1973: 127-153)에 따라 정리하면, '(1)인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역량접근법을 강조하고 이를 커뮤니티 계획(community-based planning)에 연계함으로써 시민의 권능화를 더욱 강화하고 (2)합리적 감정인 공감을 기초로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3)기존 의사소통 계획(communicative planning)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포용적인 상호이해를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4)휴머니즘을 계획의 규범적 기초로 고정하여 이를 따르면서도, (5)증가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6)보다 광범위한 인식의 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명하는 활동'이라고 서술할 수 있다. 결국 휴머니즘 계획은, 근대적 시각을 성찰하고 인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힌 새로운 휴머니즘에 철학적 기반을 두면서, 커뮤니티 계획, 의사소통 계획, 옹호 계획 등 다양한 기존 계획이론들과 연계를 통하여 계획의 실천 가능성을 모색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 2) 계획이론적 함의와 실천 가능성

휴머니즘 계획의 탐구와 실천에 주목해야 할 이유로는, 공감의 고려를 통한 계획 영역의 외연 확장, 계획 환경을 고려한 사회변혁(social transformation) 실천의 노력, 인간지향적 계획의 재정의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서구 사회과학의 한계는 계몽주의로 인하여 이성과 감정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이성에 대한 탐구에만 제한되어 왔다는 것이다(Shilling, 2002). 이에 대한 학문적 성찰로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성-감정의 이분법적 구분을 재고하는 사회과학의 감정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Barbalet, 2002), 유독 계획학은 그 근원을 '합리성(rationality)'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여전히 감정을 학문적 영역에서 배제해야 할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해왔다(Baum, 2015). 그럼에도 완전히 합리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계획이 존재할 수는 없다는 비판(Banfield, 1961; Lindblom, 1959; Rittel & Webber, 1973), 공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계획하는 능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신경생리학 연구 결과(Damasio, 2003), 공감·애착·사랑 등 특정 감정이 계획 과정에 미친다는 최근 연구들(Bush & Folger, 2005; Lyles *et al.*, 2017; Poter *et al.*, 2012) 등은, 계획에 대한 감정의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시각과 가능성을 수용·연계하여 계획이론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감정-이성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감'에 기초한 휴머니즘 계획은, 합리성이라는 계획의 핵심적 속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도구적 합리성이 강조된 계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완화한다. 다시 말해 근대 이성-감정의 이원론에서 벗어나 계획의 감정적 전환을 통한 다양한 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박혜정, 2019), 휴머니즘 계획은 우리가 깊이 탐구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휴머니즘 계획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한 가운데 사회변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는 초기 시도는 옹호계획을 통해 찾을 수 있으나, 이는 관료제 범주 내 계획가들의 엘리트 중심적 모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전상인, 2007: 10). 반면 계획가와 시민 간 지속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계획과정에서 초점을 맞춘 급진계획(radical planning)에서, 계획가의 역할은 불평등의 구조적 변혁을 위해 노력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의 모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권능화하는(empower) 것이다(Sandercock, 1998b).

그런데 기존 권력인 '국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서 급진적이고 반란적 계획(insurgent planning)을 추구한다는 점은, 오늘날 계획 패러다임과 비교해볼 때 다소 설명력을 잃는다. 왜냐하면 국가가 도시개발의 주체로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비정부기구·커뮤니티 등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이들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Burgess *et al.*, 1997). 물론 근대 계획이 생산하는 인종·계급·젠더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날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계획에서 모더니즘의 문제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보긴 어렵다(Shatkin, 2002). 결국 오늘날의 사회변혁적 계획은, 역량이 강화된 시민에 의한 계획의 형태를 취해야 하겠으나, 이는 기존 옹호계획이나 급진계획과는 구분되는 방식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선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권력의 균등화를 지향하면서, 역량접근법에 기초한 커뮤니티 계획의 강화, 그리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 지구적 사회운동과의 연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휴머니즘 계획은,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의 연계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계획의 초점을 인간 외 존재 및 자연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볼 때, 휴머니즘 계획은 지금까지 인간에 대한 고민을 담은 계획들을 총괄하여 성찰하고, 포스트휴먼에 대한 상상을 통하여 재구성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서구의 공간연구는 사회학, 인류학, 문학, 철학, 역사학 등의 인문사회적 시각이 반영되는 반면, 국내 계획학의 전형적 연구방법으로는 모든 가치를 계량화하여 예측·설명하는 비용편익 분석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계획의 지향은 주로 경제적 영역에 머물렀다(전상인 2017: 26-29). 그러나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발전을 기획한다면 사회·문화·환경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인간지향(people orientation)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간지향이란, 인간 외 다른 지각 있는 존재들 및 자연

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의 '휴머니즘에 대한 성찰과 재정'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비인간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간을 위한 계획'인 휴머니즘 계획은, '근대적 이분법에 기초한 인간 중심적 시각이 아닌, 새로운 이론적 가치관과 실천적 방향성을 제안해 새로운 삶과 관계의 방식을 발명'이라는 '포스트휴먼'(신상규, 2020: 21)의 담론과도 일치하며, 따라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기획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만 휴머니즘 계획은, 아직 이론적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또는 계획의 경험적 사례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추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도시계획학과 전공 수업에서의 공감 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Baum, 2017). 이는 계량적 연구에 집중하는 계획학과의 수업에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주는 소설 읽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누스바움의 시각(Nussbaum, 1995)과 일치한다. 인간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1) 다양한 등장인물의 다양한 경험에 대한 '스토리 읽기', (2)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 대하여 꼼꼼하게 '비평하기', (3) 1인칭,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시점 등의 다양한 관점을 시도하면서 '스토리 쓰기'의 과정을 연계하는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정체성이 다른 인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다(Baum, 2017). 결국 소설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은, 학생 개인의 공감 및 상상력의 계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시민 의식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박혜정·장원호, 2020; Sandercock, 2003; Throgmorton, 1996, 2003, 2007).

마지막으로 휴머니즘 계획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체계 변화(표 2, 의 5)의 현지화(localization)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계획가들은 다양한 제도 및 중첩된 지배체계에 의해 통제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속한 관료 문화 안에서 계획을 추진하므로, 정부조직이 인간 존엄

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체계 발전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휴머니즘 계획의 실현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료제는 각 부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상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기존 통치 구조를 변화하기 어려운 속성을 보인다(베버, 2002: 406). 더구나 국내 계획의 경우, 관료의 전문지식에 의한 계획 추진 방식을 오랜 기간 지속해 왔으며(Rueschemeyer & Evans, 1985), 관료 조직의 변화에 따른 업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우윤석, 2005), 휴머니즘 계획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주요 과제로 남는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된 우리 삶의 양식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도시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포스트휴먼 시대에 계획이 갖추어야 할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인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여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의 근간을 세우기 위하여 철학자 누스바움의 혐오와 공감, 그리고 역량접근법을 고찰했다. 그리고 그의 철학적 논의의 동일 선상에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론 수준의 본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휴머니즘 계획은 이론으로 구조화하는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 실천가능성 및 사례연구 등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향후 도시계획의 ‘고정’된 규범(Jon, 2020)이 될 수 있는 휴머니즘 계획론을 소개하고, 관련된 후속 연구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제 시민들은 한 공간에 모이는 것을 위험한 행동으로 보고, 서로 거리를 둔 생활을 공동체 의식으로 인식한다. 이는 종전까지 도시의 고밀도를 미덕으로 보았던 도시계획학자 및 계획가들의 시각과 상반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계획 수립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그렇지만 누스바움의 관점에서는 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전염병의 확산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취약한 존재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취약성의 인식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서로 혐오하지 않고 상호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기획하는 미래에 추구할 가치는 공감이며, 이에 기반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휴머니즘 계획은 앞으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계획은 인간의 감정과 같은 다양한 영향력의 가능성을 제한된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인간만을 위한 사회를 지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사고 체계를 유지하는 한, 더 이상의 발전을 계획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포스트(脫)코로나, 포스트(脫)휴먼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그간 인류에게 경고되었지만 무시해왔던, 제도화된 사고체계에 대한 성찰과 재구조화를 해야 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할 때이며, 대상화되어온 타자와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향에 대해 재고할 시점이다.

결국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지금 여기의 상황이 바로 휴머니즘 계획이론에 주목할 필요성을 말해주며, 그런 의미에서도 본 연구는 그간 계량 연구에 집중되어온 도시연구의 한계 지적과 향후 도시연구가 고민해 봐야 할 새로운 지향점 제시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는 현재 상황을 모방하면서도 수많은 열린 가능성들을 표현하는 양식, 즉 예측하고, 낙관하고, 계획하는 방식의 포스트코로나 담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격리를 ‘격리’하고 배제를 ‘배제’하며 혐오를 ‘혐오’하는 비판적·실천적 담론을 구성해야 할 때이다(김세서리아, 2020: 135-136).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 주

- 1)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auntari)의 탈주선(line of

- flight) 또는 유연성(fluidity)에서 이론적 개념을 가져온 계획이므로, 본고에서는 유연적 계획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는 지그문트 바우만(G. Bauman)의 논의들에 연계하여 ‘액체 계획’ 또는 ‘유동 계획’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다.
- 2) 휴머니즘(humanism, 인문주의, 인본주의)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서양 문화권 내에서 논의되었으나, 각 시대마다 휴머니즘의 의미는 변화해왔다. 사회과학자들은 휴머니즘을, 주로 인권 개념에 기초한 인본주의로 정의하면서 인간 권리에 대한 강조와 제도화 과정에 주목해왔으나, 그러한 강조와 제도화 과정에서 ‘휴머니즘은 역사의 흐름을 반영해 계속 재정의’ 되어 왔다(이상욱, 2020: 45).
  - 3) 누스바움의 저서 「감정의 격동」에서 compassion은 연민으로 번역되었다. 그는 pity(동정: 고통을 겪는 사람보다 주체가 우월하다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의미를 함축), empathy(감정이입: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상상적 재구성), sympathy(공감: 연민의 강렬한 감정을 인정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음)와 compassion은 다소 차이가 있는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적 정의」에서는 소설의 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하면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을 판단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상호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compassion과 empathy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치적 감정」에서 역시 연민과 감정은 특별한 구분 없이 서술된 지점들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mpassion을 ‘공감’으로 통일하였다.
  - 4) 인간의 공통적 특성으로서의 취약성을 인지하는 것 외에도, 누스바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통하여 공감은 사고 과정과 연계된 합리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첫째, 공감은 타자의 고통이 그의 삶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인지과정을 포함한다. 둘째, 괴로움을 겪는 자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경우(또는 그의 잘못이 있을 지라도 그에 비해 고통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 그는 그러한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통해 공감하게 된다.
  - 5) 누스바움이 인용한 분별 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 개념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도덕감정론」에서 설명한 것으로,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사태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건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3자’를 의미한다(Nussbaum, 1995: 42, 159-167). 스미스는 분별 있는 관찰자의 공감 능력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 사람의 처지와 느낌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다만 그 감정이 다소 편향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이성’을 통해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Nussbaum, 1995:160-162).
  - 6) “비극의 관객과 같이 소설의 독자들은 감정이입과 연민의 감정 모두를 갖게 된다.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들을 마치 그들의 입장에서 경험함으로써 주인공들의 역경에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감정 이입을 넘어 주인공들의 불행이 매우 극심한 것이고 또 그들의 잘못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관찰자적 판단을 개입함으로써 연민이 생겨나는 것이다.”(Nussbaum, 1995: 147)
  - 7) GDP접근법은 사회불평등 문제를 양적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사회의 총생산을 늘리는 성장주도적 정책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GDP접근법과 같이 성장 및 효율 중심의 정책은 인간 삶의 발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역량접근법을 통하여 계급, 신분, 젠더 등에 상관없이 인간은 동등한 존엄성(a life with human dignity)을 가지며, 이 존엄성을 각 개인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 8) 역량을 capabilities의 복수로 표현한 이유는, 사람마다 핵심역량을 달성하는 정도는 양적·질적으로 다른데 역량을 단일 수치 척도로 환원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왜곡이 생기므로 역량들 간 질적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서다(Nussbaum, 2011: 33).
  - 9) 누스바움의 10대 핵심역량의 특성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생명(life): 평균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2) 신체건강(bodily health): 양호한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신체보전(bodily integrity):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각, 상상, 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각기관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고 사고하고 추론할 줄 알아야 한다. (5) 감정(emotions): 주변 사람이나 사물에 애착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6)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 삶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역량으로서, 인간은 선(善) 관념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관계(affiliation):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존감의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사회계급, 종교,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8) 인간 이외의 종(other species): 동식물 등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9) 놀이(play): 웃고 놀 줄 알아야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10) 환경통제(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정치적으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선택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물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 10) 휴머니즘 계획은 2017년 미국의 계획학회지(Planning Theory & Practice의 Interface section)에 소개되었으며, 몇몇 계획학자들 간 논의를 기초로 하여 이론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본주의적 계획, 인문주의적 계획, 인간지향적 계획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념상 혼란을 막기 위해 원어 그대로 ‘휴머니즘 계획’으로 옮겼으며, 번역상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 참고문헌

- 김세서리아, 2020, “코로나19 시대,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 박병준 외 지음, 코로나 블루, 철학의 위안, 서울: 지식공작소, pp.125-143.
- 김연미, 2019, “누스바움의 역량접근과 정의,” 법학연구 61, pp.73-107.
- 남청수 외 공역, 2005, 매혹의 도시 맑스주의를 만나다, 서울: 이후 (= Merrifield, A., 2002, *Metromarxism: A Marxist Tale of the City*, Routledge).
- 박용준 역, 2013, 시적 정의, 서울: 궁리 (= Nussbaum, M., 1995, *Poetic Justice: the Literary Imagination and Public Life*, Boston, Mass.: Beacon Press).
- 박혜정, 2019, “계획 영역에 감정의 도입,” 국토계획(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4(2), pp.46-53.
- 박혜정·장원호, 2020, “계획이론과 공감 교육에 관한 소고,” 문화와 융합 42, pp.287-308.
- 베버, 막스, 2002, 막스 베버 사상 선집 I, ‘탈주술화’ 과정과 근대: 학문, 종교, 정치, 전성우 역, 서울: 나남출판.
- 신상규, 2020, “왜 지금 포스트휴먼인가?,” 신상규 외 지음,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경기: 아카넷, pp.14-25.
- 신은화, 2017 “혐오와 지배,” 철학연구 143, pp.189-214.
- 우윤석, 2005,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19(4), pp.103-129.
- 원제무 역, 1998, 계획이론, 서울: 보성각 (= Friedmann, J., 1987, *Planning in the Public Domai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유강은 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서울: 그린비출판사 (= Jacobs, J., 1992,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 이상옥, 2020, “3만 년 만에 만나는 낯선 지능,” 신상규 외 지음,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경기: 아카넷, pp.29-56.
- 이선, 2018, “연민의 사회적 역할: 누스바움의 연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6), pp.25-44.
- 이선주 역, 2017, 포스트휴먼의 조건-뇌를 넘어선 의식, 서울: 아카넷 (= Pepperell, J., 2003, *Posthuman Condition : Consciousness Beyond the Brain*, Bristol; Portland, OR: Intellect).
- 임지원 역, 2007, 스피노자의 뇌, 서울: 사이언스북스 (= Damasio, A., 2003. *Looking for Spinoza: Joy, Sorrow, and the Feeling Brain*, Orlando: Harcourt).
- 임창호·안건혁 역, 2000, 내일의 도시, 서울: 한울 아카데미 (= Hall P., 1988, *Cities of Tomorrow*, Oxford, UK; NY, USA: Blackwell).
- 전상인, 2007, “계획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국토계획 42(6), pp.7-24.
- 전상인, 2017, 공간으로 세상 읽기 - 집·터·길의 인문사회학, 서울: 세창출판사.
- 조계원 역, 2015,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 Nussbaum, M., 2004,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조형준 역, 2015, 감정의 격동, 서울: 새물결 (= Nussbaum, M., 2001,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한상연 역, 2013, 역량의 창조, 파주: 돌베개. (= Nussbaum, M., 2011, *Creating Capabilities: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Allmendinger, P., 2001, *Planning in Postmodern Times*, London: Routledge.
- Balducci, A., Boelens, L., Hillier, J., Nyseth, T. and Wilkinson, C., 2011, “Introduction: Strategic spatial planning in uncertainty: theory and exploratory practice,” *The Town Planning Review* 82(5), pp.481-501.
- Banfield, E., 1961, *Political Influence*, IL: Free Press.
- Baum, H., 2015, “Planning with Half a Mind: Why Planners Resist Emotion,” *Planning Theory & Practice* 16(4), pp.498-516.

- Baum, H., 2017, "To learn to plan, write stories," *Planning Theory & Practice* 18(2), pp.305-309.
- Burgess, R., Carmona, M. and Kolstee, T., 1997, *The Challenge of Sustainable Cities: Neoliberalism and Urban Strategies in Developing Countries*, London: Zed Books.
- Bush, R. and Folger, J., 2005, *The Promise of Mediation: The Transformative Approach to Conflict*, San Francisco: Jossey-Bass.
- Forester, J., 1999, *The Deliberative Practitioner: Encouraging Participatory Planning Processes*, Boston, MA: MIT Press.
- Forester, J., 2006, "Making Participation Work When Interests Conflict,"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2(4), pp.447-456.
- Good, R. M., Rivero, J. J. and Zitcer, A., 2017, "Confronting the challenge of humanist planning," *Planning Theory & Practice* 18(2), pp.291-297.
- Healey, P., 1996, "The Communicative Turn in Planning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Spatial Strategy Formation," in Campbell, S. and Fainstein, S.(eds), 2003, *Readings in Planning Theory*, Malden, MA: Blackwell, pp.237-255.
- Hillier, J., 2008, "Plan(e) speaking: A multiplanar theory of spatial planning," *Planning Theory* 7(1), pp.24-50.
- Hillier, J., 2011, "Strategic navigation across multiple planes: Towards a Deleuzian-inspired methodology for strategic spatial planning," *The Town Planning Review* 82(5), pp.503-527.
- Jon, I., 2020, "Reframing postmodern planning with feminist social theory: Toward "anti-essentialist norms"," *Planning Theory* 19(2), pp.147-171.
- Lindblom, C., 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pp. 79-88.
- Lyles, W., White, S. and Lavelle, B., 2017, "The Prospect of Compassionate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33(3), pp.247-266.
- Mumford, L., 2011, What is a City?: Architectural Record (1937), in LeGates, R. T. and Stout F.(eds.), *The City Reader*, Routledge, pp.123-127.
- Nyseth, T., 2012, "Fluid planning: A meaningless concept or a rational response to uncertainty in urban planning," *Advances in Spatial Planning*, pp.27-46.
- Reade, E., 1983, "If planning is anything, maybe it can be identified," *Urban Studies* 20(2), pp.159-171.
- Rittel, H. and Webber, M., 1973, "Dilemmas in a General Theory of Planning," *Policy Sciences* 4, pp.155-169.
- Rueschemeyer, D. and Evans, P., 1985, *The State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oward an Analysis of the Conditions Underlying Effective Intervention*, in Evans, P., Rueschemeyer, D. and Skocpol, T.(eds.), *Bringing the State Back I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ndercock, L. 1998a, The death of modernist planning: Radical praxis for a postmodern age, in Douglass, M. and Friedmann, J.(eds), *Cities for Citizens: Planning and the Rise of Civil Society in a Global Age*, New York: Wiley, pp.163-184.
- Sandercock, L., 1998b, *Towards Cosmopoli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Sandercock, L., 2003, "Out of the Closet: The Importance of Stories and Storytelling in Planning Practice," *Planning Theory & Practice* 4(1), pp.11-28.
- Sen, A., 1990, Development as capability expansion, in Griffin, K. B. and Knight, J. B.(eds.), *Human Development an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1990s*, Basingstoke: Palgrave Mac Millan, pp.41-58.
- Shatkin, G., 2002, "Working with the Community: Dilemmas in Radical Planning in Metro Manila, The Philippines," *Planning Theory & Practice* 3(3), pp.301-317.
- Shilling, C., 2002, The two traditions in the sociology of emotions, in Barbalet, J.(ed), *Emotions and Sociology*, MA: Blackwell Pub.
- Soja, E., 1997, "Planning in/for Postmodernity," in Benko, G. and Strohmayr, U.(eds) *Space and Social Theory: Interpreting Modernity and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pp.236-249.
- Throgmorton, J., 1996, *Planning as Persuasive Storytell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hrogmorton, J., 2003, "Planning as Persuasive Storytelling in a Global-Scale Web of Relationships," *Planning Theory* 2(2), pp.125-151.

Throgmorton, J., 2007, "Inventing the greatest: Crafting Louisville's future out of story and clay," *Planning Theory* 6(3), pp. 237-262.

Umemoto, K., 2017, "Towards a humanist planning," *Planning Theory & Practice* 18(2), pp.297-302.

Wildavsky, A., 1973, "If planning is everything, maybe it's nothing," *Policy sciences* 4(2), pp.127-153.

교신: 박혜정, 02054,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

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전화: 02-6490-5817, 이메일: hyejungpark@gmail.com

Correspondence: Hye Jung Park, 02054,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Tel: 82-2-6490-5817, E-mail: hyejungpark@gmail.com

최초투고일 2020년 09월 04일

수 정 일 2020년 09월 17일

최종접수일 2020년 09월 22일